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6년 11월 30일(수) 12:00
담당자	주호성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개발실장 (044-550-4637, hosungj@kdi.re.kr) 이정미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장 (044-550-4667, leejm@kdi.re.kr) 박진채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전문연구원 (044-550-4675, jcpark@kdi.re.kr)
배포일시	2016년 11월 28일(월) 16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『코리아안 미래클 4: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』 발간보고회 개최

- 일 시: 2016년 11월 30일(수) 12:00~14:00
- 장 소: 서울 플라자호텔 오크홀(4층)
- 주 최: KDI (원장 김준경),
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(4기 위원장 강봉균)

- KDI와 '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'는 오는 11월 30일 『코리아안 미래클 4: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』 발간보고회를 개최함.
- 이번에 발간된 『코리아안 미래클 4: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』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서 이를 극복하는 데 핵심 주역이었던 이규성·강봉균·이현재·진념 장관의 육성을 포함
 - 당시 정책추진 실무에 있던 안병우 前 국무조정실장, 김병일 前 기획예산처 장관, 김용덕 前 금융감독위원장 등의 증언을 통해 정책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과 겪어야 했던 고뇌를 담고 있음.

-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지탱하여 온 주력산업의 기여도가 저하되고 보호무역의 대두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은 지연되고 있음.
 - 새로운 경제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기존 이해관계의 조정 등 국민적 공감대 조성이 절실함에도 정치적 불안정은 새로운 경제구조로의 추진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는 형편

-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조응해야 할지 길을 찾고 있는 현 시점에서, 과거에는 위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는지 시사점을 담은 『코리안 미래클 4: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』가 발간됐음.
 - 계속 지연되었던 경제개혁이 위기를 맞아서야 비로소 속도 있게 추진된 과정을 보였고
 - 특히, 4대 개혁이 IMF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우리의 자발적 개혁의지의 소산이었음도 함께 밝히고 있음.

- 한편 KDI와 ‘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’는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책담당자들의 육성을 통해 정책수립의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 전수하고 개발도상국들과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『코리안 미래클』 시리즈를 공동기획하고 있음.
 - 1권에는 1950~1970년대 고도성장 및 개발정책을, 2권에는 1980년대 자율·개방시대로의 정책전환을 담았으며, 3권에는 중화학공업화, 산림녹화, 새마을운동을 다룬 바 있음.
 - 1권은 영역되어 전 세계로 배포됐고 2권도 영역 예정임.

❖ **첨부 1. 『코리안 미러클 4: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』 주요 목차**

- 프롤로그. 1997년 외환위기의 태풍
- 1장. 환란 극복의 중심에 서다
- 2장. 위기에서 빛난 경제개혁의 이상
- 3장. 금융의 큰 길을 열다
- 4장. 공공개혁의 새 틀을 짜다
- 에필로그.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대외부문의 성과

❖ **첨부 2. 「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」 구성 (4기)**

- 위원장 강봉균 前 재정경제부 장관
- 위원 안병우 前 국무조정실장
- 김용덕 前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
-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
- 조원동 前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
- 김준경 KDI 원장
- 집필 이계민 前 한국경제신문 주필
- 홍은주 한양사이버대학 교수

❖ **첨부 3. 프로그램**

시 간	내 용
12:00~12:10	기념 촬영
12:10~12:15	참석자 소개 사회 유강진
12:15~12:20	축 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
12:20~12:30	인사말 강봉균 前 재정경제부 장관 (4기 편찬위원장) 김준경 KDI 원장
12:30~12:35	『코리안 미러클 4: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』 경과 보고 및 내용 소개 이계민 前 한국경제신문 주필(집필자)
12:35~14:00	오찬 및 발간 사회
14:00	폐 회